

# 삼성, 차세대 2나노 ‘엑시노스’ 생산… AP 경쟁력 회복 기대

신형 갤럭시 스마트폰 탑재 가능성 수율 관건… 특별 테스크포스 구성 “향후 반도체 사업 결정짓는 시험대”

삼성전자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가 돌아온다.

2년 연속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제외됐던 엑시노스가 차세대 ‘갤럭시 S26’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의 AP 경쟁력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 틱스터(정보유출자) 주칸로스레브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엑시노스 2600은 확실히 돌아오며 (갤럭시) S26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칩 출하량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엑시노스 990상황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삼성파운드리 3나노(nm) 공정 수율이 저조해 결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전량 채택한 바 있다. 에 따라 엑시노스 2500은 플래그십 시장에서 배제됐고 시스템LSI사업부의 실적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세대 2나노 공정(SF2)에서 생산되는 엑시노스 2600이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엑시노스 2600은 3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적용된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기존 3나노 공정(SF3) 대비 성능은 12%, 전력효율은 25% 향상되며 면적은 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월 초 테스트에서 삼성파운드리 2나노 수율은 약 30%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60~70% 이상의 수율 확보가 필요한 만큼 아직 길

멀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의 수율 개선을 위한 특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율이 변수… ‘엑시노스-스냅드래곤’ 이원화 전략 가능성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600의 수율이 제한적일 경우 삼성전자가 과거 ‘엑시노스 990’ 시절과 유사한 ‘지역별 AP 이원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과 노트 20 시리즈 출시 당시 미국, 중국, 캐나다 등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그 외 지역에는 엑시노스 990을 탑재한 바 있다.

대신증권 박현정 애널리스트는 “엑시노스 2600이 수율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전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은 낮다”며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과 한국, 북미, 중국 시장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셋이, 유럽·인도 등 일부 시장에는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엑시노스 ‘완전 부활’ 가능할까… 시장 반응은 ‘신중 모드’

엑시노스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채택과 제외를 반복하며 시장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엑시노스 990은 성능 및 발열 문제로 혹평을 받았으며, 엑시노스 2500은 낮은 수율로 인해 갤럭시 S25에서 제외되면서 시스템LSI 사업부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600이 일부 모델에서라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의 AP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율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의 AP 사업 경쟁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현대차 ‘2025 베뉴’.

## 현대차, ‘2025 베뉴’ 출시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탑재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SUV 베뉴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연식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속 변속기 노브 ▲풀 오토 에어컨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등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미포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렉스 238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 故최종현 경영철학 전한다… ‘선경실록’ 디지털 복원

(SK 선대회장)

한국 경제 성장기 이끈 주역 음성 녹취 등 13만건 자료 복원

“별안간 예측도 못했던 중대한 정치 사안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수습이 빨라. 우리는 가장 리얼리티를 걷는 기업가들이니까 불안 요소 때문에 괜히 우리(기업인)까지 들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정치가 불안할수록 경제까지 망가지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1970~1990년대 한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인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말이다. 이렇듯 최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담은 이른바 ‘선경실록’이 유고 27년 만에 세상에 나온다.

SK는 그룹 수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해 온 30~40여년 전 경영철학과 기



1980년 12월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 후 첫 출근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SK

업활동 관련 자료를 ▲발굴 ▲디지털로 변환 ▲영구 보존·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창사 70주년 어록집’ 제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옛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 만이다.

최 선대회장은 사업 실적·계획 보고, 구성원과 간담회,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을 녹음해 원본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그룹의 경영 철학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이 같은 방침은 ‘SK 고유의 기록 문화’로 계승됐다.

즉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 MS(SK Management System)를 정립하고 전파하는 과정,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서 임직원과의 토론하는 장면, 국내외 저명 인사와의 대담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에 담겼다.

이번에 복원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형태로 약 5300건, 문서 3500여 건,

사진 4800여 건 등 총 1만 7620건, 13만 1647점이다. 최 선대회장의 음성 녹취만 오디오 테이프 3530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8시간을 연속으로 들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만큼 상당한 분량이다.

최 선대회장의 생생한 육성 녹음을 통해 당시 경제 상황과 한국 기업인들의 사업보국에 대한 의지,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해 온 선대 경영인의 해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SK 관계자는 “최 선대회장의 경영 기록은 한국 역동기를 이끈 기업가들의 고민과 철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자료”라며 “양이 매우 많고 오래되어 복원이 쉽지 않았지만, 첨단기술 등을 통해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LG전자, 싱가포르에 ‘멀티브이 아이’ 공급 KGM-체리차, 중·대형 SUV 공동개발

동남아 공조시장 공략 속도

LG전자가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를 공급하며 동남아 공조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에 축구장 약 9개 규모(연면적 5만 9800㎡)의 물류센터에 고성능 냉난방공조(HVAC) 설루션을 납품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싱가포르 건축청(BCA)이 제정한 친환경 건물 인증 프로그램 ‘그린마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초고효율(SLE)’ 획득을 목표로 설계됐다.

LG전자는 차별화된 제품 성능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앞세워 이번 프로

젝트를 수주했다. 멀티브이 아이는 ▲고성능 AI엔진 ▲오일 관리 기술(Hi-PORTM) ▲열교환기 면적 10% 이상 확대 ▲내열 성능 강화 등을 통해 실사용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 33% 높였다. 특히, 기존 중앙제어기에 냉방 능력, 소비 전력, 전체 시스템 효율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해 최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동남아 공조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에 맞춘 맞춤형 공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양사 자율주행 등 기술협력 강화

KG 모빌리티(KGM)가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SUV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양사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안후이성 우후시에 위치한 체리자동차에서 열린 공동 개발 협약식에는 KGM 객체선 회장 및 황기영 대표이사, 권용일 기술연구소장을 비롯 인통웨 체리그룹 회장, 장귀빙 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형급 SUV를 공동 개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주행 및 최첨단 SDV(Software Define



지난 1일 체리자동차에서 열린 공동 개발 협약식에서 객체선 KGM 회장(왼쪽), 인통웨 체리그룹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GM

d Vehicle) 기반의 E/E 아키텍처(전기/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용 기자

## 현대모비스 저탄소 알루미늄 선제 적용

1.5만t 확보… 글로벌 규제 적극 대응

현대모비스가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을 올해부터 주요 부품 제조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오는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일환이다. 알루미늄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 경량화를 위한 핵심 원소재료, 현대모비스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해 원자재 조달 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2일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과 구매 계약을 체결해 저탄소 알루미늄 1만 5000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GA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알루미늄 생산 업체다. 이번에 확보한 알루미늄은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이다.

현대모비스가 확보한 저탄소 알루미늄 1만 5000톤은 연간 소요 물량으로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구매한 일반 알루미늄(총 6만 7000톤)의 20%가 넘는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들어오는 저탄소 알루미늄을 새시 등 주요 부품 제조에 활용해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